



고창군이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가졌다.

“지속가능 지역발전에 온 힘”

고창군, 정유년 새해 맞아 시무식 개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등 발표

“미래 100을 내다보고 고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하며 자연이 만들어 준 복된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가졌다.

박우정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고창군민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를 발휘하며 고창이 가진 복 받은 자연과 역사, 문화, 전통자원을 잘 다듬고 결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

어왔다”며 “올해도 보다 진취적 자세로 효율적 방법을 고민하며 역동적이고 힘찬 고창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고창군은 올해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다듬는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고창읍성과 무장현관아와 읍성, 동학사 인유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을 아우르면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희망 전년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도시 ▲노후복지강화와 모든 계층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명품 복지도시 ▲유망기업유

치와 강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로 일하는 기쁨이 가득한 경제도시 ▲농어촌 6차 산업을 주도하며 농림, 해양, 산림 등 경쟁력을 갖춘 농업혁신도시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결의문을 낭독하고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 되도록”

임실군, 정유년 새해 시무식

임실군은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올 한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군, 읍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무식에서 심민 군수는 “금년 한 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밝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활기 넘치고 복지가 살아 숨 쉬는 임실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군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실질소득향상,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임실치킨 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 육성호 권역 관광특구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복지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시책을 설명하며,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치역량 강화로 감동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주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동료 직원들의 열정어린 동참과 협조”를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편, 이날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신평우 부군수, 실과원소장들은 시무식에 앞서 성수면에 위치한 소총사를 찾아 향일독립운동을 위해 떠나신 28의사에게 참배하고 임실군과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힘찬 의정활동 시작

“세이경청의 자세로”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2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임실군의회원과 의회 직원이 함께 하는 2017년 정유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문영두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군의회가 더 큰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세이경청(洗耳傾聽)의 자세로 군민 여러분과 더욱 많은 대화와 경청을 통해 소통하고 현장에서 길을 찾는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시무식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임실군의회는 사전행사로 소총사를 참배했으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이 계획된 제

265회 임시회(1월 17일 개회)를 시작으로 모두 10차례의 임시·정례회를 개최하는 등 2017년도 의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시가점 현장 위문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중관)는 2일 오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남원방역 첩병 역할을 하고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 외 4곳의 초소를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그 동안 남원시는 구제역, AI 등의

가축 전염병이 전국을 휩쓰는 동안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방역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김중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추위에도 밤낮을 잊고 근무하는 여러분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들을 위해 조금만 더 애써달라”며 위문품과 함께 근무

자들을 위로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도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AI는 며칠 전 포유류인 고양이에게서도 그 감염이 밝혀져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거점 3곳, 이동초소 2곳 등 총 5개의 초소가 2016년 11월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이환주시장시정 방향... 산악철도청사지 등 밝혀

이환주 시장은 2017년에는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파루침선(破釜沈船)의 각오로 불확실성에 맞서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유년(丁酉年)에는 더욱 더 진취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문화관광 산업화로 관광도시 명성을 다지기로 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은 국비 19억 6,000만원을 투자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또, 본 사업 34km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산면 일원에 1,700억원을 투자하는 관광단지과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해 관광남원의 매력을 높이기로 했다. 역동적인 경제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노안산업단지 분야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매일반산업단지 공사를 3월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컨버전스센터를 연내 준공해 제품개발, 판매,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손잡고 안정적인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도 도모한다.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 통시장 특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쌀값하락과 농산물 수입증대로 힘들

어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추진한다. 3년 연속 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춘향애인은 올해 850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친환경경농산물 생산기반도 늘려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만들어내기로 했다.

지난해 779가구 1,084명을 유치한 귀농귀촌 사업도 정성을 다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교육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청소년 시립도서관을 착공해 청소년들이 맘껏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고 있는 혁신교육특구는 3년차를 맞아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미래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호평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더욱 내실을 다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산모보건서비스를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남원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남원 조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동충동과 죽향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노후수급관망 교체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

안전한 도시 건설에도 투자를 늘린다.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청렴서약 결의식



국립임실호국원, 청렴서약 결의식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은 2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신년참배와 청렴서약 결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시무식은 새해 첫 업무시작 전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직원참배를 시작으로 국가보훈처 보훈공직자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결의하는 청렴서약 결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준태 원장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국립임실호국원이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장으로 발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AI 차단 전 행정력 동원

남원시가 AI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남원시지나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환주시장)로 확대하여 13개 실과소로 구성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장소 5개소와 가금농가 소독약품 2차레, 생석회 1,800포를 전 가금농가에 공급하였다.

또한, 남원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전 가금농가에 발송하여 동절기 동안 입식자제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으며,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실과소 종합행정담당을 동원하여 자율적인 소비 및 도태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발전협의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규모 가금 전담을 차상위계층 연말연시 나눔행사에 활용하는 등 따뜻한 미담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AI 인체감염 예방 홍보 및 시 홈페이지에 『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과 『AI 인체감염 관련 Q&A』를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을 준수하면 AI에 감염될 우려가 없으며, 남원시는 AI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지난해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 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40-2183) 및 각 읍면 사무소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기본에 충실하고 소통 할 것”

신임 이길수 고창부군수 취임

제25대 고창군 부군수로 이길수 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이 취임했다.

이 부군수는 1959년생이며 전북 부안군 출신이다. 1983년 부안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1년 전북도청으로 전입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순창군 경제지원과장, 전북도 원가심사담당을 비롯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전북도 회계과장을 역임하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6년 7월부터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을 맡아 많은 일을 해왔다.

직업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며 신뢰받는 행정과 효율적 재정운용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처리, 폭넓은 인간관계로 도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부군수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과 함께 간략한 취임식을 가진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길수 부군수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고창군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 구성원간 적극적인 융합과 소통으로 박우정 부군수의 군정철학에 발맞춰 800여 공직자와 함께 6만600여 고창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한국인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의 조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덕면 이진수 이장, 사랑의 성금 쾌척

저소득 아동에 100만원 전달

신덕면 행복보장협의회체발굴분과 이진수 위원(사기마을 복지이장)은 2일 저소득 아동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원을 신덕면사무소에 전달하며 따뜻한 새해를 열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연시를 즈음하여, 관내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해 성금을 쾌척하고 있다.

신덕면 이환기 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사랑의 성금을 기탁해 주신 고마운 마음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